

무술년 키워드 ‘도전·혁신’... “넓은 관행 벗어던져야”

자본시장 CEO 신년사

국내 자본시장을 이끌고 있는 금융투자업계 기관장과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들은 무술년 새해 키워드로 ‘도전과 혁신’을 꼽았다. 예측이 쉽지 않은 업계 안팎의 환경 변화에 대처하려면 넓은 관행을 던져버리고, 새로운 도전 과제 발굴과 적극적인 투자에 나서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나온 공통된 주문이다.

정지원 한국거래소(KRX) 이사장은 2일 서울 여의도 사옥에서 열린 ‘2018년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서 “우선 코스닥 시장의 지배구조를 개편해 시장관리와 조직·예산 운영의 독립성을 높이고 유가증권시장과의 경쟁을 유도할 것”이라며 “과거 실적보다 성장잠재력 중심으로 코스닥 진입요건을 정비해 혁신기업 상장도 촉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기관투자자의 (코스닥) 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코스피·코스닥 통합지수 등 새로운 벤치마크 지수를 개발하고 코스닥 기반 금융상품도 확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유가증권시장은 글로벌 시장에 부합하는 상장제도를 마련하고 상장지수펀드(ETF)와 상장지수증권(ETN)의 기초자산을 다변화하며 파생상품 시장은 KTOP30 선물, 금리 및 외환 파생상품 등을 확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이사장은 “현행 자본시장의 주문 주도형 거래구조도 시장조성자제도 등 딜러 시장의 장점을 결합해 유동성은 확충하고 변동성은 완화하는 방향으로



정지원 한국거래소 이사장

코스피·코스닥 통합지수 등 개발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 구축할 것

편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그는 “신종 불공정거래에 대응하기 위해 인공지능 기반의 차세대 시장감시시스템을 조기에 가동하고 준법 컨설팅을 강화해 위법행위의 사후적 발이 아닌 사전예방 중심으로 시장감시 패러다임도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또 기업지배구조 공시제도의 단계적인 의무화, 스튜어디십 코드의 확산에 대한 의지도 밝혔다.

정 이사장은 “자본시장의 지속 가능한 성장기반도 구축해나갈 것”이라며 혁신적인 인텍스로 멀티에셋지수를 개발하고 거래정보 저장소(TR)도 차질 없이 설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해 블록체인의 등 신기술의 자본시장 적용도 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병래 한국예탁결제원 사장은 “자본시장 혁신과 일자리 창출 선도”라는 경



이병래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혁신적 전자증권제도 구축 총력 빅데이터 등 단계적인 확장 계획

영목표를 제시했다.

이 사장은 “혁신적인 전자증권제도 구축을 위해 전사적인 역량을 결집하겠다”며 “내년 9월 시스템 오픈 전까지 최고 수준의 안정성과 보안성을 갖춘 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개념증명에 성공한 전자투표에 블록체인의 기술을 접목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예탁결제원 업무 전반에 블록체인, 빅데이터 등 혁신기술 접목 가능성을 적극 검토해 단계적으로 확장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도 적극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지석 코스콤 사장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매출 및 이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업 구조를 혁신하겠다. 중대형 증권사를 위한 새로운 서비스를 발굴하고 고부가가치 사업 추진을 위해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겠다”고 밝



윤용암 삼성증권 사장

“변화를 기회로” 프레임 전환 강조 한계 뛰어넘는 추가적 성장 제공

혔다.

윤용암 삼성증권 사장은 “급격한 금융환경 변화를 기회로 만들 수 있도록 사고의 프레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앞으로의 금융환경 변화는 지금까지와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속도로 전개될 것이다. 현재에서 미래로, 국내에서 글로벌로, 내 부문에서 다른 부문으로 기존에 고정돼 있던 프레임을 과감히 전환하고 확장해야만 금융환경 변화를 기회로 만들 포인트를 찾아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윤 사장은 또 “고객의 요구를 우리가 가진 자원만으로 충족시킬 수 없다면 국내외 다른 금융기업과의 협업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이는 기존의 한계를 뛰어넘는 추가적인 성장의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김원규 NH투자증권 사장은 “지속적



김원규 NH투자증권 사장

자본시장의 ‘퍼스트 무버’ 제시 고객과의 장기적 파트너십 구축

인 성장을 위해서는 또 한 번의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올해 경영 목표의 최고의 금융 가치(Financial Value)를 창출하는 자본시장의 퍼스트무버’를 제시했다. 고객과 시장의 판세 변화를 가장 먼저 읽고, 모든 사업부문에 업계 1등 경쟁력을 갖춰 고객이 먼저 찾고 가장 신뢰하는 회사로 자리매김하는 의미라는게 그의 설명이다.

이를 위해 ‘고객과의 장기적인 파트너십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사장은 “급속한 고령화와 은퇴 후 늘어난 수명으로 고객과의 관계가 장기화 될 것”이라며 “회사나 직원이 고객의 평생 파트너가 돼야 안정적인 성장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김 사장은 글로벌과 디지털을 활용한 성장동력 확보도 강조했다.

/김문호 기자 kmh@metroseoul.co.kr



2일 여의도에서 김원규 IBK투자증권 대표이사가 신년사를 하고 있다. /IBK투자증권

“초대형 IB 대비, 차별화된 전략 마련해야”

IBK투자증권 김원규 사장 신년사

IBK투자증권 김원규 사장은 2일 신년사를 통해 “초대형 투자은행(IB)의 출범에 대비해 차별화된 성장전략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원규 사장은 이날 신년사에서 “외형 기반 확대와 차별화된 영업전략을 마련해 제2의 도약을 위한 기반을 다지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고객관리자산, 유효고객 수와 같은 회사 영업력을 가늠하는 지표를 획기적으로 늘릴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다.

기존의 영업 방식으로는 새로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그는 “사업 부문별로 각종 영업 방식, 고객 관리, 조직 운영 등 모든 업무 프로세스를 재검토할 것”을 요구하며 “새로운 아이디어를 도입해 영업력을 최대로 끌어 올려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또 “중소기업과 함께 성장해나가야 한다”는 원칙을 언급하며 “업계 유일

의 공기업 계열의 증권사로 국가 경제에 이바지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IBK금융은 이미 크라우드펀딩, 코넥스, 프라이머리 CBO 등 중소벤처기업 자금조달 시장에서 선두를 차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사장은 임직원들에게 “금융그룹 네트워크와 시너지를 동원해 대기업과 공공기관, 유관 협회, 지역 우수 중소기업, 지역 특성화 대학을 대상으로 협력 네트워크를 확장하는 데 앞장서 달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 사장은 중소기업인들이 뽑은 올해의 사자성어인 ‘호시우행(虎視牛行)’과 ‘발분망식(發憤忘食)’을 언급했다.

그는 “호시우행(호랑이의 눈빛을 간직한 채 소걸음으로 감), 발분망식(일을 이루려고 끼니조차 잊고 분발, 노력 함)의 정신을 마음에 새겨야 한다”며 이를 통해 회사의 성장을 도모하는 동시에 중소기업의 든든한 지원군이 될 것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김현정 인턴기자 hjk1@

상장사들의 ‘기업 쪼개기’ 여전히 활발

회사 합병·분할 결정 공시 64건

지난해 국내 상장사들의 기업 쪼개기(분할)가 활발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8일까지 회사 합병 또는 분할 결정 등의 공시는 64건으로 전년(66건)보다 2건 줄었다.

회사합병 공시 법인은 38곳으로 13.6% 줄었고 공시 건수는 40건으로 11.1% 감소했다. 이 중 합병 상대방이 관계회사인 경우가 39건(97.5%)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비관계회사끼리의 합병은 에스지중방의 신동 흡수합병(7월 10일)이 유일했다.

합병 상대방의 자산규모가 가장 큰 상장사는 미래에셋생명으로 합병 상대방인 피씨에이생명보험주식회사의 자산

총액은 5조3450억원이었다.

SK의 SK마리타임(4조원) 합병이 2위, 대성산업의 대성합동지주(1조1230억원) 흡수합병이 그 뒤를 이었다.

회사분할 공시 법인은 20곳으로 11.1% 증가했지만, 공시 건수는 20건으로 전년과 동일했다.

인적분할이 9건으로 50.0% 늘었고 단순·물적분할은 11건으로 21.4% 감소했다.

인적분할은 분할 전 회사의 주주들이 지분율대로 신설법인의 주식을 받는 방식의 분할로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는 기업에서 많이 활용하는 방식이다. 물적분할은 신설법인의 주식을 기존 회사가 100% 자회사 형태로 보유하는 형식이다.

분할 신설법인의 자산규모가 가장 큰

기업은 현대산업개발로 분할 신설법인인 에이치디씨현대산업개발주식회사(가칭)의 자산규모는 4조원에 달한다.

롯데지주의 분할 신설법인 롯데제과(가칭·자산 1조7000억원), SK케미칼의 에스케이케미칼주식회사(가칭·1조6000억원), BGF의 비지오프리테일(1조1000억원)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지난해 회사분할합병 공시 법인은 4곳 있었는데 건수도 4건으로 전년보다 3건 씩 증가했다.

분할합병 공시는 롯데그룹의 지주회사 출범에 따른 것으로, 롯데지주는 롯데제과, 롯데쇼핑, 롯데칠성음료, 롯데푸드 등 4개사를 투자부문과 사업부문으로 인적분할한 뒤 롯데제과의 투자부문이 나머지 3개사의 투자부문을 흡수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김문호 기자

신한금융투자 “우리 ISA가 달라졌어요” 이벤트

신한금융투자는 새해부터 변경되는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제도의 혜택을 알리고, 고객 자산 증대를 위해 ‘우리 ISA가 달라졌어요’ 이벤트를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ISA 가입자들은 1월 1일부터 납입원금 내 자유로운 중도 인출이 가능해지고, 서민형·농어민 ISA 가입자들의 비교세한도도 250만원에서 400만원까지 확대된

다. 이러한 변경 사항은 기존 가입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번 이벤트는 크게 세가지로 구성됐다. ISA 가입자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퀴즈이벤트로 신한금융투자 홈페이지에서 퀴즈를 풀고, 응모한 고객 중 5명을 추첨해 AIS피커를 제공한다. ISA 신규 가입한 고객 선착순 300명에게 스타벅스 기프트콘을, 타사에서ISA 계좌를 이전해온 선착



순 100명에게 이마트 모바일 상품권을 제공한다. ISA계좌에 100만원 이상 납입한 고객 전원에게 마이신한포인트 1만점을 지급한다. ‘우리 ISA가 달라졌어요’ 이벤트는 3월 31일까지 진행된다. /김문호 기자